



## WSSD 에너지부문 파트너십 제안

에너지는 가난한 사람들의 삶에 중요하며 식량, 물, 건강, 그리고 소득과 직업 측면에서도 이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에너지에 대한 접근가능성은 빈곤탈피를 위해서 중요하다. 현재 최빈국 사람들의 50%는 하루 1\$ 이하, 그리고 70%는 하루 2\$ 이하의 적은 금액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약 50%가 실업 상태이다.

입수가능한 에너지 서비스에 대한 접근은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경제활동을 촉진시키며, 고용 및 소득획득 기회를 창출하고, 특히, 여성 및 어린이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중요하다. 즉, 땀감을 구하고 원시적인 방법으로 요리하는데 낭비하는 많은 시간을 다른 생산적이고 가족활동을 하는데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한 발표자에 의하면 과거에는 에너지시장 진입(intervention)이 효율적이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는 50\$~300\$ 규모의 소규모 기술이 개발되어 빈곤층 특히, 농촌사람들에게 에너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단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기술의 예로는 자동물펌프, 태양열 이용 건조기, 바이오 연료를 이용한 爐 등이 있다.

이 발표자는 개도국 특히,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각국 에너지 예산의 1/4~1/3을 소규모 에너지 기술에 배분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기술은 가능하면 연료공급, 국산장비 제조 및 유지 보수 측면에서 자급자족이 되어야 한다.

빈곤층의 니즈 충족 이외에도, 에너지 서비스는 경제성장과 일반적으로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진입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세 가지의 핵심 필요사항이 언급되었는데: 대부분 농촌지역에 살면서 전기 혜택을 보지 못하는 약 20억의 인구에게 에너지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하나이고; 재생가능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이 또 다른 하나이며; 보다 청정한 화석연료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마지막 하나이다.

그러나 보다 청정하고 보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경로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정책과 전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전환작업이 당분간은 쉽게 추진되지는 못할 것이다.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일별별 목표 설정이 보다 지속가능한 에너지자원 축진의 유용한 방법론으로 여러번 강조되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포괄적인 정책 아젠다에는 능력배양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농촌지역 사람들의 니즈와 에너지 서비스에 접근을 전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니즈, 그리고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을 위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보조금 감축과 에너지 이용과 관련된 환경비용의 효과적인 내재화는 효율적인 시장을 위한 요소

이다. 현재 다수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력시장의 자유화는 농촌 및 도시지역 빈곤층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정책은 농촌 뿐만 아니라 도시지역 빈곤층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통합되고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 에너지 서비스 제공을 증가시키기 위해 필요한 투자는 어마어마하며, 공공 및 민간부문 모두에 의해서 추진될 것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각국에 가장 적합한 에너지경로로 진입할 수 있는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가 당장 요구된다.

10년 전 기후변화협약에서 에너지가 간접적으로 다루어지기는 했지만, 아젠다에 포함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에너지는 아젠다에 포함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치와 이행을 필요로 하는 WSSD의 핵심분야 중의 하나가 되었다.

**다음은 에너지 분야에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었던 사항들이다.**

- 에너지절약 및 효율의 중요성과 이 두가지를 기존의 정책과 소비패턴에 통합시켜야할 필요성.
- 청정에너지와 건강 연계의 중요성.
- 청정에너지원의 중요성과 이러한 자원을 이용하기 위한 기술개발의 필요성.
- 재생가능에너지가 총에너지원에서 차지하는 명확한 목표치 설정의 필요성.
- 현재의 자본집약적이고 중앙집중식인 전통적인 에너지공급 방식과 농촌지역을 위한 보다 분산형의 소규모 기술에 대한 투자간의 이해득실을 따져볼 필요성.
- 기후변화 등 에너지관련 전 분야에서의 협력 필요성과 교토의정서가 발효되도록 비준을 진전시킬 필요성.
- 모든 국가는 에너지이용 및 정책에 대해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이 것은 에너지 이용자를 돕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

다 개선된 전지구적 정책들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정책 및 이행방안을 결정함에 있어 시민사회가 참여할 필요성이 있는데, 여기에는 여성과 토착민 등 현지 주민들의 역할도 포함되어야 한다.
- 지속가능한 에너지에 도움이 안되는 보조금을 폐지할 필요성.
- 청정에너지 경로로의 전환에 의해서 피해를 입게 될 근로자들을 위한 안전망을 마련할 필요성.
- 보다 지속가능한 에너지경로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지원하며, 수용하기 위해 시장을 개혁할 필요성.
- 기술 개발 및 개선을 위해 과학과 사업이 어떻게 중요한가?
- 소규모 청정에너지 기술의 보급을 위해 대규모 프로그램에 착수할 필요성.
- 개도국에 지속가능한 에너지기술과 에너지 서비스를 개발하고 도입하기 위한 파트너십의 중요성
- 지역통합 및 협력의 중요성은 무엇이고, 이러한 것이 지역 에너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유용한 것은 무엇인가?

**논의의 핵심이 되었던 주요 에너지목표는 다음과 같다.**

**• 빈곤 타파를 위한 에너지**

빈곤 타파를 위한 에너지 접근의 초점은 농촌지역에서의 에너지에 대한 접근과 여성들의 에너지에 대한 접근이다. 빈곤층에 입수가능한 에너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소규모의 에너지기술 투자에 국가 에너지 예산의 상당부분이 할당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규모의 에너지 프로젝트도 산업부문에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필요하며, 그래야만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가가 가능하게 된다.

• **에너지절약과 에너지효율**

건물 설계 및 관리 개선, 대중교통 개선, 첨단 의 혁신적 청정기술의 채택, 에너지 라벨링 및 기준제도 및 정부조달정책의 개선 등으로 이 부문에서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 사회구성원 모두가 참여 자격과 역할이 있다. 예를 들어 노동조합도 작업장에서 에너지절약에 기여할 수 있다. 암시적인 에너지효율 목표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 언급되었다.

• **재생가능에너지의 장려**

2010년 또는 2015년까지 에너지믹스의 10%를 현대적 재생가능에너지로 구성하는 목표설정이 달성가능하고 유용함을 많은 사람들이 동의했다. 일부 국가들은 목표설정의 전반적인 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각국의 필요와 능력에 따라 독자적으로 에너지정책을 결정하고 에너지믹스를 구성해야 할 것이라는 태도를 보였다.

• **정책과 경제적 수단의 이용**

청정에너지기술과 재생가능에너지 이용을 방해하는 보조금 지원 감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언급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보조금의 일부가 재생가능에너지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에 지원되어야함을 제안했다. 환경비용을 내재화시키는 정책도 언급되었는데, 이 경우 에너지공급 비용이 상승할 것임을 인정해야 한다.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이 빈곤층을 보호하는 정책과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

• **여성의 니즈 충족**

여성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에너지정책을 설계할 필요성이 있다. 여기에는 실내오염, 땀목채취, 에너지 서비스를 얻기 위한 그레디트에 대한 접근 등 여성들만이 겪게되는 특별한 문제와 여성들의 정책 결정 참여와 같은 문제들이 다루어져야 한다.

• **기후변화에 대한 조치**

많은 사람들이 정부가 기후변화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아직까지 교통의 정서를 비준하지 않은 국가들이 신속히 비준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발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이 문제는 다른 회의에서 논의될 주제라고 반박했다.

**에너지부문 “파트너십” 프로그램  
WSSD 공식발표**

- E7 국가 9개 대형 전력회사는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프로젝트를 위한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UN과의 협정에 서명하였다.
- EU는 에너지관련 파트너십 이니셔티브에 700백만\$ 투자를 발표했으며, 미국도 2003년에 43백만\$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 DESA, UNEP 및 美EPA는 청정연료 및 수송부문에서의 파트너십을 발표했으며, 이 발표는 민간부문 NGO 및 선후진국의 확실한 파트너들로부터 광범위한 지지를 얻고 있다.
- 남아공화국의 전력회사 Eskom은 이웃 국가들에게 현대식 에너지서비스 확대를 위한 파트너십 사업을 발표했다.
- UNEP는 개도국에 녹색 청정에너지기술의 연구, 이전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소위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에너지 글로벌 네트워크”이라는 새로운 이니셔티브에 착수했다.
- UN은 에너지 프로젝트 관련 32개의 파트너십 계획을 접수했는데, 이것은 금액으로 최소한 26백만\$에 해당된다.

(자료정리: 한국에너지협의회 이성룡 차장)